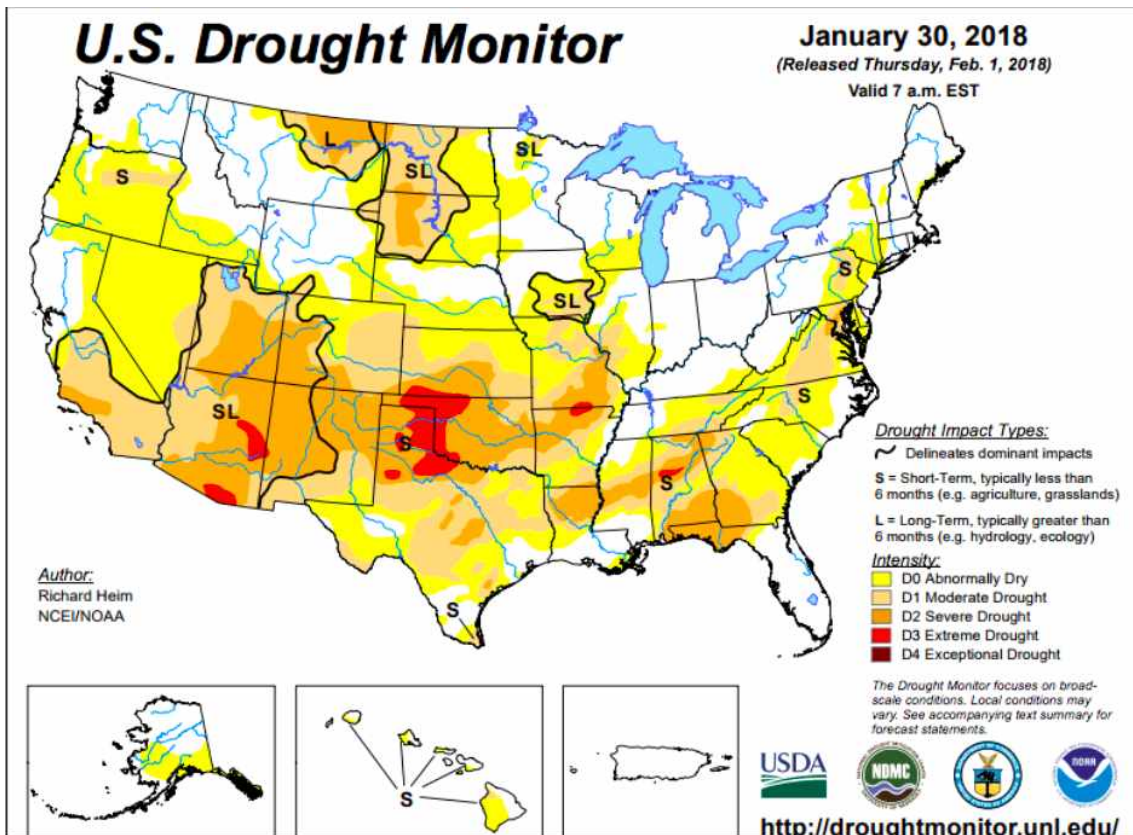


2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6)

□ 미국 기후 현황(1/28~2/03)

남동부와 대서양 연안지역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비구름이 대서양으로부터 몰려오면서 추위를 몰아내고 비를 뿌렸다. 남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2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오대호에서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 밖의 로키산맥 동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남부 평원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들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평년 수준 미만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와 북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렸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체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서부 산간 지역에서는 여전히 누적 적설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따뜻한 날씨로 인해 쌓여 있던 눈도 녹아내리고 있다. 내륙산간지역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20°F 정도 높았다. 로키산맥 동부 일대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5°F 이상 높았다. 반면, 북부 일대와 중부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1/29~2/4)

중부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남부 평원에서부터 로키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의 평균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25% 정도 낮았다. 애팔래치아 산맥 동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렸다. 로키산맥 북부 일대와 오레곤, 워싱턴 주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다.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특히 로키산맥 중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5°F 이상 높았다. 반면, 동부 일대에서는 뉴잉글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 □ 세계 기후 현황(1/28~2/3)

■ 유럽: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교적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 독일 남부와 동부, 폴란드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7°C 이상 높은 날씨로 인해 대부분의 눈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중부와 북부 일대에서는 지난 9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보다 많아서 (100%~200%) 토양의 수분 함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북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도 주 초반과 주 후반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퀸즐랜드 남부 일대에서는 20~7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일대에서도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다. Buenos Aires 서부, La Pampa, Cordoba 남부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Entre Rio, Santa Fe 중부 등에서도 2~2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북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일 기준 옥수수 파종률은 94%를 기록했고, 대두의 파종률은 99%를 기록했다.

■ 브라질: Minas Gerais에서부터 Maranhao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일대에서도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일 기준 대두의 수확률은 20%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p 낮은 수치이다. 옥수수의 파종률도 1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에 비해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 Sao Paulo, Minas Gerais의 사탕수수, 커피 재배지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